

KBS  
3. 8.(금)

## 22개 해외 도시에 재외선거관... 실효성 분석해보니

### [보도내용]

- ① 8명의 재외선거관을 보낸 미국의 재외선거 등록률은 3%에 불과한데, 가나, 에티오피아, 인도, 태국 등 재외선거관 없이 각 영사관이 자체적으로 투표를 관리하는 나라의 재외선거 등록률이 더 높게 나옴.
- ② 선관위가 어학성적 조차 확인하지 않고 해외 파견을 보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됨.

### [보도내용에 대한 설명]

- 재외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(2004헌마644, 2005헌마360)으로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후 2012년 제19대 국선부터 실시함.
  - ※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
- 재외선거가 도입된 **헌법적 취지**, 재외국민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**국민화합** 및 정치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**단순히 비용이나 효율성 문제로 판단할 수는 없음.**
  - ※ 재외선거 등록률이나 투표율은 정치적 상황 등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률 등만으로 성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

### ① 재외선거 등록률 관련

- 보도에서 언급된 가나, 에티오피아, 인도, 태국 등은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공관에 비해 추정 선거권자수가 극히 적으므로 **단순 등록률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의미가 없음.**

※ 보도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등록률 비교(제22대 국선 기준)

파견여부	국가명	추정 선거권자수	신고·신청자수	등록율
미파견	에티오피아	236명	149명	63.1%
	가 나	427명	118명	27.6%
	인 도	9,087명	1,699명	18.7%
	태 국	16,230명	1,601명	9.7%
파 견	미 국	873,277명	34,490명	3.9%

○ 재외선거 실시 공관 178개 중 재외선거관 파견 공관은 22개에 불과하지만, 전 세계 추정 선거권자의 68%, 신고·신청자수의 56%를 관할하고 있음.

※ 파견공관 및 미파견공관 추정 선거권자수 등 비교(제22대 국선 기준)

파견여부	공 관 수	추정 선거권자수	신고·신청자수	등록률	담당자 1인당 평균 신고·신청자수
파 견	22개(12.4%)	1,342,806명(68.0%)	85,014명(56.4%)	6.3%	3,864명
미파견	156개(87.6%)	631,464명(32.0%)	65,687명(46.6%)	10.4%	421명

## 2 재외선거관의 어학성적 관련

- 단기 재외선거관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재외선거관 선발기준 및 외교부 예규에 따라 외국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.
- 재외선거관은 주재국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외교관과 달리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주된 업무를 하므로 어학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음.
- 무엇보다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선거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학능력보다는 선거관리능력이 더 우선된다고 볼 수 있음.